
TV 스포츠 영상을 통해 인지된 섹슈얼리티와 시청만족도

Sexuality and Audience's Satisfaction Cognized through the Sports Image of Television

박광순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Kwang-Soon Park(kspark@cju.ac.kr)

요약

본 연구는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섹슈얼리티 구성요소와 섹슈얼리티 요소가 시청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여자 집단에서는 섹슈얼리티 요인이 구성되지 않았다. 전체 집단에서는 '성적감응 유발부위 관련 섹슈얼리티', '신체적 특징 관련 섹슈얼리티', '화장 및 유니폼 관련 섹슈얼리티' 등과 같이 3개의 인자가 구성되었다. 남자집단 분석에서는 '성적감응 유발부위 관련 섹슈얼리티', '몸동작/신체적 특징 관련 섹슈얼리티', '유니폼 관련 섹슈얼리티', '몸단장/신체적 특징 관련 섹슈얼리티', '가슴 관련 섹슈얼리티', '젖은 몸 관련 섹슈얼리티', '외모 관련 섹슈얼리티', '건강 관련 섹슈얼리티' 등과 같이 8개의 요인이 구성되었다. 전체 집단의 3요인 모두는 시청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자 집단에서는 '유니폼 관련 섹슈얼리티', 가슴 관련 섹슈얼리티, '건강 관련 섹슈얼리티' 요인 등이 시청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선호도 및 스포츠 프로그램 시청량의 요인은 두 집단 모두에서 섹슈얼리티 요인보다 시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TV 스포츠 | 시청만족도 | 섹슈얼리티 | 스포츠선수 |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onsider the sexuality elements that the audience perceive from athletes on television images and how those elements influence on audience satisfaction. A total of groups were composed of 3 factors, and a group of men, 8 fact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rrelation ratio to sexuality elements was relatively higher. But the correlation to the sexuality elements, the ratio of preference on sports and the audience quantity on sports program was hardly formed. Also, the result of analysis about the influence of these elements on the audience satisfaction of sports program showed that the higher ratio was in order of the audience quantity of sports program, the preference of sports, the sexuality elements, and so on. As a whole, it was shown that, for a group of college students, the athletes' sexual image on TV had only a slight influence on the audience satisfaction with sports program.

■ keyword : | Sexuality | Athletes | Athletes | Satisfaction | Sports |

I. 문제의 제기

현대의 스포츠는 세계화 속에서 국가, 지역,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고취시킨다. 스포츠는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인종 등의 이념과 사회적 시스템의 차이를 초월하여 세계인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동질의 문화를 생산한다. 스포츠는 지난 30년 동안 점진적으로 글로벌화를 추구해 왔으며, 글로벌화의 이면에는 미디어가 자리하고 있다[43]. 과거 미디어와 스포츠의 관계성은 미디어가 우월적 지위에서 스포츠를 중계·보도하였지만, 미디어의 채널이 증가됨에 따라 대량의 콘텐츠가 필요한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오히려 미디어가 스포츠를 더욱 필요로 하는 실정이다. 미디어의 콘텐츠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르가 스포츠이다. 스포츠는 미디어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규모와 영역이 확대되면서 상품화 되었다[2][15][52]. 스포츠는 강력한 이미지로 관람자나 시청자들로부터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기 [43] 때문에 인기 종목들은 기업의 스폰서와 방송 중계료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반면 막대한 중계료를 지불한 방송사들은 스포츠 프로그램 판매를 통해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자들은 보다 많은 시청자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의 선정성을 지향한다. 방송 프로그램의 선정성의 가장 대표적인 요소는 성(sex)과 관련한 섹슈얼리티(sexuality)이다.

TV에서의 섹슈얼리티는 주로 성담론, 신체노출, 성적행위 등으로 묘사되는데, TV에서 가장 빈번하게 표현되는 선정적 행위 유형으로는 신체노출(1997)과 선정적 언어(2001)이다[17]. 이와 같이 미디어에서의 성묘사는 성적 관심, 성적인 매력, 성적 행위, 성에 대한 인식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27][39][50]. TV 프로그램의 선정성은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성 프로그램이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선정성은 시청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13]. 이러한 미디어의 섹슈

얼리티 생산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다. 미디어스포츠에서의 성과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성(sex),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 범주에 집중되고 있다. 스포츠 경기 및 선수의 성차별 보도 [25][28][29][32][34][40][48], 성 역할[35][38][49][53], 섹슈얼리티[24][26][27][30][33][38][39][47][50]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미디어스포츠 보도에 대한 초기 연구 동향은 남녀 경기와 선수의 성차별에 관한 분석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미디어스포츠에 묘사된 선수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고 있다. 미디어스포츠에서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쇄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미디어스포츠는 남성 선수들에 대해서는 지배 이데올로기적 성역할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 여성 선수들에 대해서는 남성의 성적인 대상으로 묘사되었다는 것이다. TV스포츠에서도 여러 유형의 섹슈얼리티가 노출되고 있다.

TV스포츠에서의 섹슈얼리티는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영상이미지를 통해 묘사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저널리스트나 해설자 등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독자들은 미디어스포츠에서 선수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성이 없는 신체적 외모가 강조되거나 부각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즉 선수의 매력적인 외모는 기사나 스포츠 중계 과정에서 저널리스트나 해설자에 의해 묘사됨으로써 해당 선수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대 스포츠에서는 선수의 경기력 외에 매력적인 외모도 선수의 대중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디어스포츠에서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인쇄미디어에 집중되었으며, 연구방식도 내용분석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용자 중심의 실증연구가 매우 적은 편이다. 특히 선수들의 다양한 섹슈얼리티가 노출되고 있는 TV스포츠 분야에서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전반적인 연구 상황으로 볼 때 미디어스포츠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수용자 중심의 연구는 시작단계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V스포츠 영상을 대상으로 스포츠 선수에 대한 수용자의 섹슈얼리티 인

지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TV스포츠 영상을 통해 인지된 수용자의 섹슈얼리티 인지구조를 밝히는 것은 프로그램제작의 기본 방향이 수용자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실무분야에, 학문적으로는 수용자의 스포츠프로그램 시청행위, 시청의도, 시청동기, 시청만족도 등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 기초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미디어스포츠의 섹슈얼리티 관련 연구

미디어스포츠에서의 스포츠 선수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성(sex), 젠더(gender), 인종(race), 섹슈얼리티(sexuality) 등의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디어스포츠의 섹슈얼리티 문제는 성차별 보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성차별 보도는 공·사적 미디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과거 많은 연구에서 남성 스포츠 위주의 성차별 보도를 증명[32]하였으며, 대략 30~40여 년간 남성 선수에 대한 보도가 지배적이었다[28][30][34][36][48][53]. 또한 흑인 선수보다는 백인 선수가, 아마추어 선수보다는 남녀 모두 프로선수에 대한 보도가 더 많았다[34]. 그러나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 수여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흑인 선수가 과도하게 묘사되었다[42]. 이 같은 미디어스포츠의 성차별 보도의 오랜 관행은 국제경기와 몇몇 특정 종목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성 선수는 미적인 스포츠에서의 경쟁자로, 남성 수들은 힘의 경쟁자로 묘사하는 변화를 보였다[35]. 올림픽은 다른 경기에 비해 여성선수들에 대한 공평한 보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42]. 특정 미디어와 종목에서는 남성 선수보다 여성 선수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웹사이트에서 남녀 테니스에 대한 정보량의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남자 선수보다 여자 선수에 대한 기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32].

스포츠에서 젠더에 대한 인식은 섹슈얼리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스포츠선수들의 젠더 역할은 선수들과 스포츠 팬(fan)과의 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

수이다. 스포츠 선수들과 스포츠 팬과의 관계성 연구에서 스포츠 팬들은 선수들의 남성다움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반면, 여성다움과는 부정적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49].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도 남성의 성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스포츠 스타의 모델은 남성 선수가 주를 이루었다. 즉 스포츠 스타가 사회적으로 영웅시 되는 과정에서도 미디어의 성차별이 나타났다[40]. 선수를 직접 지도하는 감독들도 스포츠에서의 지배적인 성역할은 남성다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감독들은 스포츠와 미디어제도 내에서 선수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은 남성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53]. 생물학적 개념의 성(sex)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과 같은 젠더 개념에 의해 성역할이 더욱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향이 있으며, 남성다움과 여성다움과 같은 성역할 개념은 성의 상대적 섹슈얼리티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즉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섹슈얼리티 이미지가 다르게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성은 더욱 여성스러워야 하고 남성은 더욱 남성스러워야 상대적으로 더욱 풍부한 섹슈얼리티의 감정을 갖거나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스포츠에서 선수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수용자의 관심과 이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디어 분야에서 섹스어필 광고는 섹슈얼리티가 은폐되어 묘사되는 가장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유형이다. 섹스어필 광고는 오랫동안 광고주와 연구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오늘날의 광고는 섹스어필 광고가 편재((遍在)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고메시지에서의 성적어필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33]. 그러나 주요 매스미디어에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묘사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으며, 젊은 계층의 사람일수록 이러한 미디어와 접촉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미디어에서의 성적어필은 어떻게든 실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27]. 이와 같이 젊은 계층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성적인 내용과 이미지가 많으며, 이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이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정형화된 성역할이 현저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다[50]. 특히 미디어에서의 성적인 묘사는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에게 긍정적인

고 이상적인 성에 대한 태도 형성에 안정적인 성관련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38].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디어에서 남녀의 섹슈얼리티를 묘사함에 있어서도 성차별화가 나타난다. 크라사스 등[39]은 남녀 전문잡지 사진에 묘사된 성적 수사학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은 남성의 성적 대상화와 남성 중심의 성적 사랑의 객관화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성애적 사랑의 범주에서 묘사되었으며, 주로 백인 중심으로 더욱 섹시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남성잡지에 비해 여성잡지에서 성관련 내용의 기사가 많았으며, 성관련 기사내용의 대부분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었으며, 성과 관련한 유해한 정보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26]. 또한 남성 잡지에 묘사된 남성의 섹슈얼리티 이미지는 여성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 남성다움과 건강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47].

미디어스포츠에서의 섹슈얼리티는 특정 종목이나 인종에 따라 다르게 묘사된다. 특정 종목에 따라 흑인 선수와 백인 선수의 구성 비율이 다른데, 전통적으로 트랙이나 필드 종목에는 흑인 선수가 많다. 흑인 선수에 대한 여성성은 부적절한 것으로 경시된 반면, 대중적인 백인 선수에 대해서는 매혹적인 금발, 모델, 선수 등의 이미지로 묘사되었다. 특히 미국 여자 테니스 선수들에게는 다른 스포츠와 달리 여성 선수들에게 짧은 흰색 스커트와 같은 여성적인 복장을 장려해 왔다[30]. 애틀랜타 올림픽 경기를 보도한 주요 일간지들은 여성 선수에 대해 강한 성적인 특색과 활동적이고 매력적인 신체 그리고 이성애적인 경쟁자로 묘사되었다는 것이다. 스포츠 관계자들은 장래성이 있는 선수들이 언론, 광고, 기업스폰서 등을 통해 마케팅 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여성 선수들은 기업의 스폰서, 광고와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운동경기로부터 벗어난 섹슈얼리티와 여성성의 강조를 촉진하고 제공하는 미디어보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29]. 기업들은 유명 선수에게 후원을 하거나 이들을 광고모델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스포츠를 마케팅에 활용한다. 스포츠에서 여성의 참여와 여성의 경기는 점점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스포츠 선수는 성적인 대상으로 묘사되었

으며, 선수의 이러한 섹슈얼리티는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다[24]. 여성 선수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은 여성의 체력적 힘과 능력보다 외모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함으로써 여성 선수의 개인적 아름다움과 의상이 선수의 스포츠 행위에 대한 팬의 평가에서 핵심이 되고 있다. 즉 여성 선수 신체의 특정 부분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스포츠 선수보다 해학적인 성적 대상으로 묘사되었다. 여성 선수들의 여성성과 섹슈얼리티는 피겨스케이팅, 체조, 테니스, 수영, 다이빙 등과 같은 개인적이고 미학적 즐거움을 주는 종목에서 두드러졌다[51].

미디어스포츠에서의 성, 젠더, 섹슈얼리티에 대한 보도행태는 국내 미디어에서도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스포츠의 내용은 여성 선수에게 적절한 역할의 모델을 제공해 주지 못하여 성역할의 고정관념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힘에 입각한 사회적 체제의 정당화 및 미디어 자본가의 성불평등 이데올로기의 관념을 당연시해왔다[3]. 남녀 기사건수, 기사량, 사진건수, 사진의 크기, 스포츠 기사의 그래픽 건수, 그래픽 크기, 경기 사진 건수, 비경기 사진 건수, 기사의 게재 위치 등 모든 영역에서 남자 선수 위주로 보도되었다[6]. 1980년대 들어 여성 선수의 상품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과감한 노출 샷이 등장하였다. 특히 리듬체조, 수영, 테니스 등과 같은 종목의 외국 선수들은 여성다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요정으로 때로는 성적매력을 보여주는 섹시스타로 표현되었다[1]. 국내 일간지 스포츠 섹션에 보도된 여성 선수는 성 고정관념의 대상으로 취급하였고, 여성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으로 남성독자를 위한 상품으로 취급됨으로써 왜곡되어졌으며,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국내 일간지에 성 고정관념적인 묘사로 게재된 여성 선수의 사진은 주로 서구 선수들에 집중되었다[20]. 일간지에서의 여성 선수의 섹슈얼리티 묘사는 크게 2가지의 사진계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나는 여성 선수를 묘사할 때 아래쪽의 엉덩이를 부각시키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 선수의 은밀한 부위를 보일 듯 말 듯, 혹은 아예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현상은 피부노출이 심한 수영, 체조, 피겨스케이팅과 같은 종목 위

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11]. 국내 방송의 2008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에 있어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여성의 경기 종목은 다이빙, 수중발레, 비치발리볼 등 경기에서 신체노출이 많은 경기 종목이 많았다. 한국과 관련이 없는 중계방송에 있어서도 육상, 수영, 체조, 수중발레, 다이빙, 비치발리 등 신체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기 위주로 편성되었다. 이는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성적 차별성, 선정성, 여성의 상품화 등을 엿볼 수 있다[18].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미디어스포츠는 남성 경기 및 선수에 비해 여성 경기 및 선수에 대한 보도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보도 방식에서도 스포츠 경기 또는 선수로서의 능력이나 가능성보다는 선수의 개성, 특성, 부양가족, 가족에 대한 사랑, 부모의 사랑, 종교적 신념, 성적인 대상화 등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묘사하여 여성 스포츠 경기 및 선수들이 사소화(trivialization)되었고 한계화(marginalization)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오랫동안 인쇄미디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여성 선수의 섹슈얼리티를 노골적으로 묘사해 온 것처럼 TV의 스포츠 중계 과정에서도 선수의 섹슈얼리티가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되고 있다.

2) TV 및 스포츠프로그램 시청만족도

TV시청과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이용과 충족 접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에 이용되는 변인은 TV시청과 관련된 능동적 행위 변인에 집중되고 있다. TV시청행위의 결과는 시청 전, 시청 중, 시청 후 등과 관련된 변인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 TV 시청행위는 시청동기와 시청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청동기는 TV의 미디어 수준과 각 프로그램 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성된다. 그리고 시청경험은 시청태도 변인인 친밀감, 현실감, 만족도, 관여도, 의사인간관계, 의도성, 주목도, 채널 및 프로그램 선호도, 시청량, 시청만족도 등의 변인이 이용된다. 시청동기와 시청만족도는 시청태도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형성[45]되며, 능동적 시청행위 요인은 시청효과에 영향을 미친다[31]. 즉 시청만족도는 시청동

기와 시청경험의 다양한 요소들과 상호 복합적인 관계성을 통해 형성된다[9][12].

스포츠프로그램 시청동기는 팬십(fanship), 학습(learning), 이완(escape), 교제(companionship), 시간 때우기 차원(filler dimension)으로 종합할 수 있다[51]. DMB 스포츠프로그램의 시청동기와 시청자의 심리적 안정 및 만족도는 시청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4]며, 격투기프로그램 시청동기는 시청태도인 접촉도와 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또한 스포츠프로그램 시청동기는 관여도와 심취도에 영향을 미친다[7]. 그리고 스포츠프로그램 진행자의 전문성, 화면구성, 흥미, 방송시간대, 방송량, 종목의 다양성 등의 요인은 스포츠프로그램 시청만족도[5]에, TV스포츠 수용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는 스포츠 종목의 다양성, 재미, 정보전달, 공정성, 아나운서의 자질, 해설자의 전문성, 방송의 현장감 등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임양준[19]은 TV드라마 시청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시청동기 및 시청태도는 시청만족 간 관계성이 유의미하였으며, 중시청자가 경시청자에 비해 만족도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학생들의 스포츠 참여빈도는 스포츠프로그램 시청 몰입도, 만족도, 접촉도 등에, 참여기간은 만족도와 접촉도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나타났으며, 스포츠프로그램 시청 만족도는 스포츠 참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TV 시청동기 연구에서 '성적흥미' 인자가 빈번하게 추출된다. 시청동기 요인으로 추출된 '성적흥미' 요인은 시청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12][19][23][44]. 대부분의 연구에서 텔레비전 시청동기 요인은 시청만족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하거나 시청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동기 차원의 '성정흥미' 요인이 시청만족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섹슈얼리티 요소가 스포츠프로그램 시청만족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시청동기 차원의 성정흥미 요인은 시청 전 수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 후 결과인 시청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섹슈얼리티 요소는 성과 관련이 없는 스포츠경기를 시청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요소로 시청동기와 차원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동기 차원에서의 시청만족도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선수의 섹슈얼리티는 소프트코어적인 것으로 시청자가 성적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이다. 따라서 TV 스포츠 중계를 통해 인지되었거나 중계 과정에서 노출되는 선수의 섹슈얼리티도 시청 후 결과인 시청만족도와 어떠한 관계성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3. 연구문제

일반적으로 미디어에서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남성다움으로 여성의 성적인 만족을 위한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는 반면,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남성에 의해 성적인 만족을 얻는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7]. 즉 이성애적 섹슈얼리티(heterosexuality) 범주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남성의 성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남성 중심의 성적 사랑을 객관화 하는 한정된 방향으로 묘사되고 있었다[39]. 미디어스포츠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섹슈얼리티는 주로 여성 선수를 대상으로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디어스포츠는 영화에서처럼 남성이 여성의 육체를 엿보는 관음주의의 한정된 범주에서 여성의 신체가 노출되는 것과 달리 미디어스포츠에서는 남성선수들의 신체부위 노출빈도가 매우 높다. 그 동안 미디어스포츠에서는 남성 소비자를 겨냥한 여성 선수의 섹슈얼리티를 묘사하는데 집중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스포츠 중계방송에서 여성경기보다는 남성경기의 비중이 높고, 여성경기 종목은 신체 노출이 많은 종목의 편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 그러나 과거에 비해 남녀 간 불평등 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된 상황에서 여성스포츠의 중계 및 소비자가 크게 증가되었다.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선수들의 섹슈얼리티 묘사는 여성 선수에 집중되었으며, 주된 소비의 타겟은 남

성스포츠 소비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적인 감정은 상대적으로 여성 소비자들도 남성 선수로부터 묘사되는 섹슈얼리티를 소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집단에 대한 섹슈얼리티 인지구조와 남녀 집단을 구분한 섹슈얼리티 인지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TV 스포츠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된 스포츠 선수의 섹슈얼리티 인지구조는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는가?

연구문제 2. 남녀 집단 간 스포츠 선수의 섹슈얼리티 인지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스포츠 선수의 섹슈얼리티 요소는 스포츠프로그램 시청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2008. 11. 17 ~ 2008. 11. 21일 기간에 실시되었다. 응답자 샘플방식은 임의표집 방식으로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차 자료 수집은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학생 83(남자 45, 여자 38)명에게 “TV 스포츠 중계를 통해 스포츠선수들로부터 성적감정을 느끼게 하거나 성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가능한 많이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1차에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2차 자료 수집을 위한 52개의 폐쇄형 질문지가 작성되었다.

1차 자료 수집을 통해 만들어진 개방형 질문지는 “다음 문항은 TV스포츠를 통해 인지된 스포츠 선수들의 섹슈얼리티를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당신은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까?”라는 5점 척도로 구성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2차 최종 자료 수집은 2곳의 4년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461(남자 232, 여자 229)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2) 설문지 응답자 구성 비율

응답자 구성 비율은 남자가 232명 중 1학년 65(28%), 2학년 22(9.5%), 3학년 84(36.2%), 4학년 61(26.3%)명, 여자가 229명 중 1학년 65(28.4%), 2학년 37(31.9%), 3학년 73(31.9%), 4학년 54(23.6%)명이었다

3) 개념정의 및 변인의 측정

섹슈얼리티란 용어는 성행위와 성적인 행동 그리고 성에 대한 욕망, 감정, 생각, 태도, 담론, 성적인 문화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디어에 묘사되는 섹슈얼리티는 하드코어적인 것과 소프트코어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직접적인 성적행위를 묘사하는 섹슈얼리티를, 후자는 성적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의 섹슈얼리티를 의미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미디어스포츠에서 선수들을 대상으로 표현되는 섹슈얼리티는 소프트코어적인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섹슈얼리티란 “TV 스포츠를 통해 시청자들이 선수들로부터 성적감정을 느꼈거나 느끼게 하는 모든 성적 요소”로 정의하였다.

섹슈얼리티에 관한 52문항(Cronbach alpha=.953)과 스포츠프로그램 선호도, 시청만족도에 대한 질문은 5점 척도로, 시청량은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시간과 분단위로 측정하였다. 시청만족도는 김과 루빈[37]이 사용한 5개의 문항을 스포츠프로그램에 알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Cronbach alpha=.899).

5. 분석결과

연구문제 1) 남녀 전체집단에 대한 요인분석

TV의 스포츠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된 수용자들의 선수에 대한 섹슈얼리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베리맥스 지각 회전방법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하나의 독립된 요인구성을 위한 기준은 1.0 이상의 아이겐 값(eigenvalue)과 3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주인자적재치(primary factor loadings)는 .5이상, 부적재치는 .4 이하로 구성되어야 했다. 추출된 요인은 다음

과 같다[표 1].

요인 1의 내용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sex) 부위와 일상생활에서 잘 노출되지 않는 신체부위와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성적감응 유발부위 관련 섹슈얼리티’로 석하였다(Eigenvalues=11.761, Variance=22.618, Cronbach’s alpha=.952).

요인 2는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선수들의 특징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신체적 힘, 건강, 열정적인 모습 등의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즉 선수의 신체적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들로 강력한 힘과 건강을 상징하는 신체의 외형적인 특징, 선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으로부터 드러나는 신체 동작이나 부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를 ‘신체적 특징 관련 섹슈얼리티’로 해석하였다(E=8.609, V=16.556, C=.921).

요인 3은 선수의 화려한 분장이나 화장 또는 유니폼의 은밀한 부분에 표기된 글귀 등 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요소들과 관련된 것들이다. 체조나 피겨스케이팅 등은 움직임의 동작을 통해 미를 감상할 수 있는 종목으로 예술성이 강조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스포츠 선수들의 의상이나 분장은 매우 화려하다. 따라서 요인 3을 ‘화장 및 의상 관련 섹슈얼리티’로 해석하였다(E=3.361, V=6.463, C=.710).

연구문제 2) 남녀 각 집단에 대한 요인분석

두 집단에 대한 분석결과 여자 집단에서는 요인 회전 시 수렴되지 않아 요인구성에 실패하였으나, 남자 집단에서는 총 8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2].

요인 1의 주된 내용은 성(sex) 관련 부위와 관련된 것들로 전체 집단에서의 요인 1과 유사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1을 ‘성적감응 유발부위 관련 섹슈얼리티’로 해석하였다(E=7.338, V=14.112, C=.917).

요인 2는 선수의 거친 동작, 땀이 흐르는 모습, 넓은 어깨와 가슴, 세레머니 동작, 튼튼한 허벅지, 열정적인 모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선수의 체력, 건강, 열정, 경쟁 등의 이미지와 관련된 것들이다. 따라서 요인 2를 ‘몸동작/신체적 특징 관련 섹슈얼리티’로 해석하였다(E=5.787, V=11.130, C=.859).

요인 3은 선수의 유니폼과 속옷에 관련된 것들이다.

즉 유니폼의 특징에 따라 신체의 노출정도, 유니폼의 화려함, 속옷 노출 등 선수의 의상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요인 3을 ‘유니폼(의상) 관련 섹슈얼리티’로 해석하였다(E=3.868, V=7.438, C=.869).

요인 4는 선수가 경기 진행 중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경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자신의 몸을 가꾸는 모습 등에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이를 ‘몸단장

행위 관련 섹슈얼리티’로 해석하였다(E=3.461, V=6.655, C=.770).

요인 5는 가슴의 움직임, 크기, 글래머 스타일의 몸매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즉 여성의 고유한 신체적 특징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요인 5를 ‘가슴 관련 섹슈얼리티’로 해석하였다(E=2.932, V=5.638, C=.852).

표 1. 전체집단에 대한 인자분석

| | 성분 | | |
|-------------------------------------|--------|--------|--------|
| | 1 | 2 | 3 |
| 성적감응 유발 부위 관련 섹슈얼리티 | | | |
| 팍 긴 유니폼에 의한 성 부위(남근·음부) 윤곽이 드러난 모습 | .839 | -.041 | .020 |
| 슬로모션에 의한 성 부위(남근·음부)의 리얼한 움직임 | .814 | -.030 | .032 |
| 유연한 몸동작에 의한 아한자제(특정자제)의 모습 | .775 | .079 | .179 |
| 경기 중 선수 가슴의 움직임 | .763 | .093 | .085 |
| 선수의 특정 동작에 의한 성 부위가 드러날 때 | .761 | .066 | .063 |
| 얇은 유니폼으로 속옷의 라인이 드러나거나 비칠 때 | .755 | .004 | .280 |
| 속옷 미착용으로 인해 선수 가슴의 윤곽이 드러날 때 | .753 | .016 | .000 |
| 선수가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 .743 | -.013 | .214 |
| 보일 듯 말 듯 하게 속옷이 노출될 때 | .738 | .050 | .170 |
| 보일 듯 말 듯 한 선수의 가슴 | .731 | .043 | -.014 |
| 슬로모션에 의해 선수 가슴의 움직임이 리얼하게 드러날 때 | .722 | .126 | .155 |
| 선수의 큰 가슴을 볼 때 | .720 | .088 | .031 |
| 노출이 많은 유니폼(의상) 입었을 때 | .720 | -.058 | -.036 |
| 경기 중 선수의 속옷이 리얼하게 드러날 때 | .681 | -.077 | .082 |
| 선수가 화려(아한)한 유니폼을 착용했을 때 | .664 | -.042 | .049 |
| 유니폼이 땀이나 비에 젖어 선수의 속살이 비칠 때 | .660 | .242 | .096 |
| 글래머스타일 선수의 신체를 볼 때 | .595 | .263 | -.011 |
| 바닥에 누운 자세에서 동작이 이루어질 때 | .574 | .094 | .401 |
| 영덩이에 긴 유니폼을 손으로 빼어내는 모습 | .548 | .090 | .472 |
| 신체적 특징 관련 섹슈얼리티 | | | |
| 선수의 넓은 어깨와 가슴 | -.049 | .789 | -.049 |
| 경기 중 선수의 몸에서 땀이 흐르는 모습 | .052 | .746 | .108 |
| 빛에 그을린 구리 빛 피부 | .062 | .724 | .133 |
| 선수의 단단(근육질)한 종아리 | .106 | .716 | .269 |
| 선수의 튼튼한 허벅지를 볼 때 | .151 | .710 | .098 |
| 선수의 거친 몸동작 | .043 | .701 | .245 |
| 상체가 드러난 선수의 뒷모습을 볼 때 | -.043 | .683 | .107 |
| 선수의 근육질 체형의 몸매 | .002 | .656 | -.076 |
| 선수의 쇄골 뼈가 노출될 때 | .155 | .643 | .070 |
| 선수의 몸 전체가 땀이나 물에 젖었을 때의 모습 | .075 | .612 | .172 |
| 선수의 몸이 탄력적일 때 | .272 | .587 | .039 |
| 선수의 강한 눈 빛 | -.160 | .574 | .300 |
| 경기 중 선수의 열정적인 모습 | -.273 | .567 | .139 |
| 긴 목, 팔, 다리를 비추어 줄 때 | .072 | .563 | .220 |
| 하늘을 향해 세레머니 할 때의 모습 | -.115 | .517 | .383 |
| 화장 및 의상 관련 섹슈얼리티 | | | |
| 선수의 분장이 화려할 때 | .278 | .219 | .671 |
| 영덩이 부분에 글귀가 새겨진 유니폼(팬츠)을 입었을 때 | .394 | .183 | .620 |
| 노출이 많은 유니폼을 착용한 트랙선수를 위·아래로 비추어 줄 때 | .234 | .211 | .609 |
| Eigenvalues | 11.761 | 8.609 | 3.361 |
| % of Variance | 22.618 | 16.556 | 6.463 |
| Cumulative | 22.618 | 39.174 | 45.637 |

표 2. 남자집단에 대한 인자분석

| | 성분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 성적감응 유발 부위 관련 섹슈얼리티 | | | | | | | | |
| 슬로모션에 의한 성 부위(남근·음부)의 리얼한 움직임 | .833 | .091 | .108 | -.073 | .129 | .059 | -.083 | -.020 |
| 팍 낀 유니폼에 의한 성 부위(남근·음부)윤곽이 드러날 때 | .800 | -.032 | .230 | .027 | .182 | .024 | -.013 | .059 |
| 선수의 특정 동작에 의한 성 부위가 드러날 때 | .762 | .170 | .119 | -.012 | .110 | .068 | -.004 | -.038 |
| 유니폼이 땀이나 비에 젖어 선수의 속살이 비칠 때 | .697 | .124 | .305 | .113 | .084 | .088 | .188 | .125 |
| 유연한 몸동작에 의한 야한자제(특정자제)의 모습 | .667 | .029 | .159 | .178 | .224 | .051 | .063 | .102 |
| 선수가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 .663 | .084 | .301 | .191 | .066 | .076 | .043 | -.034 |
| 얇은 유니폼으로 속옷의 라인이 드러나거나 비칠 때 | .599 | -.005 | .333 | .170 | .124 | .122 | .218 | .143 |
| 바닥에 누운 자세에서 동작이 이루어질 때 | .551 | .095 | .071 | .359 | .234 | .267 | .104 | .097 |
| 선수의 골반 뼈가 노출될 때 | .540 | .056 | .045 | .387 | .207 | .043 | .191 | .174 |
| 보일 듯 말 듯 한 선수의 가슴 | .535 | -.098 | .340 | .036 | .349 | .109 | .206 | .103 |
| 움직임/신체적 특징 관련 섹슈얼리티 | | | | | | | | |
| 선수의 거친 몸동작 | .043 | .802 | -.014 | .190 | .108 | .076 | .144 | .062 |
| 경기 중 선수의 몸에서 땀이 흐르는 모습 | .144 | .783 | .047 | .067 | .157 | .079 | .072 | .216 |
| 선수의 넓은 어깨와 가슴 | .009 | .721 | .103 | .079 | .147 | .134 | .083 | .172 |
| 선수의 쇄골 뼈가 노출될 때 | .265 | .638 | .030 | .135 | .135 | .105 | .114 | .020 |
| 하늘을 향해 세레머니 할 때의 모습 | -.171 | .594 | .055 | .389 | -.028 | .117 | -.158 | .100 |
| 선수의 튼튼한 허벅지를 볼 때 | .078 | .563 | .181 | -.012 | .144 | -.104 | .149 | .387 |
| 경기 중 선수의 열정적인 모습 | -.141 | .548 | .108 | .009 | -.128 | .371 | .230 | .152 |
| 유니폼(의상) 관련 섹슈얼리티 | | | | | | | | |
| 선수의 화려(야한)한 유니폼(의상) | .395 | .037 | .700 | .113 | .156 | .038 | .148 | .047 |
| 딱 달라붙는 유니폼에 의해 전체 몸매의 윤곽이 드러날 때 | .229 | .196 | .660 | -.016 | .109 | .162 | .210 | -.037 |
| 노출이 많은 유니폼(의상) | .304 | -.109 | .632 | .039 | .299 | .013 | .120 | .057 |
| 경기 중 선수의 속옷이 노출될 때 | .377 | .055 | .630 | .070 | .059 | -.087 | -.026 | .124 |
| 경기 중 선수의 유니폼이 땀에 젖었을 때 | .229 | .381 | .532 | .036 | .036 | .240 | .133 | -.080 |
| 속옷 미착용으로 인해 선수 가슴의 윤곽이 드러날 때 | .378 | -.058 | .529 | .083 | .269 | -.024 | .016 | .143 |
| 선수의 탄력적인 엉덩이 | .270 | .160 | .521 | .223 | .145 | -.053 | .240 | .255 |
| 몸단장 행위 관련 섹슈얼리티 | | | | | | | | |
| 경기 후 자신의 머리를 정리하는 모습 | -.056 | .205 | .112 | .741 | .059 | .212 | .106 | .049 |
| 노출이 많은 유니폼을 착용한 트랙선수를 위·아래로 비추어 줄 때 | .151 | .113 | .162 | .672 | .081 | .258 | .042 | .009 |
| 선수의 분장이 화려할 때 | .323 | .209 | -.007 | .615 | .029 | .009 | .183 | .250 |
| 엉덩이 부분에 글귀가 새겨진 유니폼(팬츠)을 입었을 때 | .319 | .199 | .127 | .511 | .037 | -.061 | -.069 | .113 |
| 가슴 관련 섹슈얼리티 | | | | | | | | |
| 선수의 큰 가슴을 볼 때 | .293 | .188 | .109 | .002 | .736 | .075 | .013 | .080 |
| 글래머스타일 선수의 신체를 볼 때 | .257 | .163 | .241 | .127 | .632 | -.033 | .285 | .094 |
| 슬로모션에 의해 선수가슴의 움직임이 리얼하게 드러날 때 | .374 | .150 | .204 | .111 | .551 | .199 | .067 | -.005 |
| 경기 중 선수 가슴의 움직임 | .395 | .156 | .200 | .086 | .550 | .290 | .130 | -.074 |
| 보일 듯 말 듯 하게 속옷이 노출될 때 | .367 | .161 | .282 | .147 | .525 | .114 | -.009 | .151 |
| 젖은 몸 관련 섹슈얼리티 | | | | | | | | |
| 경기 중 휴식시간에 자신의 몸에 물을 뿌리는 모습 | .174 | .098 | .044 | .103 | .131 | .609 | -.052 | .108 |
| 경기 종료 후 물에서 나오는 모습 | .258 | .258 | .091 | .223 | .146 | .601 | .077 | .121 |
| 상체가 드러난 선수의 뒷모습을 볼 때 | .035 | .394 | .043 | .251 | .026 | .536 | .088 | .354 |
| 외모 관련 섹슈얼리티 | | | | | | | | |
| 선수의 뛰어난 외모(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 | -.031 | .097 | .220 | .081 | .014 | .059 | .739 | -.031 |
| 선수의 미끈한 몸매 | .098 | .257 | .207 | .091 | .379 | -.029 | .633 | .161 |
| 긴 목, 팔, 다리를 비추어 줄 때 | .174 | .396 | .062 | .077 | .034 | .017 | .545 | .213 |
| 건강 관련 섹슈얼리티 | | | | | | | | |
| 빛에 그늘린 구리 빛 피부 | .061 | .315 | -.014 | .150 | .214 | .248 | .185 | .672 |
| 선수의 근육질 체형의 몸매 | .030 | .291 | .363 | .025 | -.014 | .224 | .051 | .604 |
| 선수의 단단(근육질)한 종아리 | .146 | .394 | .023 | .367 | -.011 | .097 | -.061 | .585 |
| Eigenvalues | 7.338 | 5.787 | 3.868 | 3.461 | 2.932 | 2.611 | 2.551 | 2.460 |
| % of Variance | 14.112 | 11.130 | 7.438 | 6.655 | 5.638 | 5.022 | 4.906 | 4.731 |
| Cumulative | 14.112 | 25.241 | 32.680 | 39.335 | 44.973 | 49.995 | 54.901 | 59.632 |

요인 6은 선수가 자신의 몸에 물을 뿌리는 모습이나 물속에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상체가 드러난 선수의 뒷 모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수영 선수들로부터 인지된 섹슈얼리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요인 6을 ‘젖은 몸 관련 섹슈얼리티’로 해석하였다(E=2.611, V=5.022, C=.644).

요인 7은 선수의 얼굴과 몸의 미학적 아름다움과 관련된 것들로 구성되었다. 즉 선수의 신체적 아름다움과 관련된 것들이다. 인자 7을 ‘외모 관련 섹슈얼리티’로 해석하였다(E=2.551, V=4.906, C=.704).

요인 8은 빛에 그늘린 구리 빛 피부, 근육질 형 몸매, 단단한 종아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스포츠 선수의 건강한 신체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인자 8을 ‘건강 관련 섹슈얼리티’로 해석하였다(E=2.460, V=4.731, C=.737).

연구문제 3) 스포츠프로그램 시청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스포츠 선수에 대한 섹슈얼리티 요인, 스포츠 선호도, 스포츠프로그램 시청정도 등이 스포츠프로그램 시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정 독립변수의 영향력과 모든 독립변수들이 동시에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

도를 알아보기 위해 동시입력방식(enter)을 이용하였다 [표 3]. 전체 집단에 대한 분석결과 3개의 섹슈얼리티 요인 모두 스포츠프로그램 시청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요인 중 ‘스포츠 선호도’(β=.282, t=6.044, p<.001)와 ‘스포츠프로그램 시청량’(β=.502, t=10.754, p<.001) 요인만이 시청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섹슈얼리티 요소가 시청만족도와 관계성이 낮은 것은 다른 시청동기 차원에서 스포츠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스포츠프로그램 시청동기 요인 중 상관관계 요인이 추출되었거나 된다면 선수의 섹슈얼리티 요인도 시청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성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청자들은 성적인 요소와 관련성이 낮은 다양한 시청동기 차원에서 스포츠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 집단에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스포츠프로그램 시청만족도의 총 변동량에 58.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집단에서는 요인 3의 ‘유니폼(의상) 관련 섹슈얼리티’(β=.129, t=2.937, p<.01), 요인 5의 ‘가슴 관련 섹슈얼리티’(β=.087, t=1.951, p<.05), 요인 8의 ‘신체적 특징 관련 섹슈얼리티’(β=.089, t=1.997, p<.05), ‘스포츠 선호도’(β=.223, t=3.856, p<.001), ‘스포츠프로그램 시청량’(β=

표 3. 전체집단과 남자집단의 시청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독립변인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 값 | 유의 확률 |
|-----------------------|------------------------|--------|------|-----------|--------|-------|
| | | 베타(β) | 표준오차 | 베타(β) | | |
| 전체집단 | 성적감응 유발 부위 관련 섹슈얼리티 | .077 | .042 | .068 | 1.850 | .065 |
| | 신체적 특징 관련 섹슈얼리티 | .071 | .041 | .059 | 1.734 | .084 |
| | 화장 및 의상 관련 섹슈얼리티 | .026 | .050 | .020 | .520 | .603 |
| | 스포츠선호도 | .252 | .042 | .282(***) | 6.044 | .000 |
| | 스포츠프로그램 시청량 | .501 | .047 | .502(***) | 10.754 | .000 |
| | R2= .585, adj. R2=.580 | | | | | |
| 남자집단 | 성적감응 유발 부위 관련 섹슈얼리티 | .018 | .037 | .021 | .490 | .625 |
| | 몸동작/신체적 특징 관련 섹슈얼리티 | .009 | .043 | .011 | .252 | .802 |
| | 유니폼(의상) 관련 섹슈얼리티 | .109 | .049 | .129(**) | 2.937 | .004 |
| | 몸단장 관련 섹슈얼리티 | -.001 | .047 | -.0.01 | -.033 | .974 |
| | 가슴 관련 섹슈얼리티 | .084 | .046 | .087(*) | 1.951 | .047 |
| | 젖은 몸 관련 섹슈얼리티 | -.069 | .037 | -.082 | -1.894 | .060 |
| | 외모 관련 섹슈얼리티 | .001 | .039 | .001 | .029 | .977 |
| | 신체건강 관련 섹슈얼리티 | .093 | .056 | .089(*) | 1.997 | .045 |
| | 스포츠선호도 | .216 | .054 | .223(***) | 3.856 | .000 |
| | 스포츠프로그램 시청량 | .578 | .059 | .565(***) | 9.726 | .000 |
| R2=.584, adj. R2=.565 | | | | | | |

*p<.05, **p<.01, ***p<.001

=.565, $t=9.726$, $p<.001$) 등의 요인이 스포츠프로그램 시청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집단에서는 전체 집단과 달리 유니폼과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그리고 스포츠선수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적인 성부위 관련 요소에 비해 관계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집단에 투입된 변인들은 스포츠프로그램 시청만족도의 총 변동량에 56.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TV의 스포츠영상을 통해 인지된 수용자들의 섹슈얼리티 인지구조를 파악하고 섹슈얼리티 요가 스포츠프로그램 시청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현재의 미디어스포츠 환경은 과거 오랜 관행으로 지속되어 왔던 성차별 보도와 성에 따른 소비시장의 불균형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 따라서 과거 미디어스포츠는 여성선수의 섹슈얼리티를 남성소비자를 겨냥하여 생산하였으나, 현대 미디어스포츠는 남녀 경기 및 선수에 대한 보도 태도 및 보도 량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기 때문에 남성 선수의 섹슈얼리티의 생산은 물론, 여성 소비자들도 남성 선수의 섹슈얼리티를 소비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집단에서는 ‘성적감응 유발부위 관련 섹슈얼리티’, ‘신체적 특징 관련 섹슈얼리티’, ‘화장 및 의상 관련 섹슈얼리티’로 해석된 3개의 요인이 구성되었다. 요인 1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녀의 생물학적 성(sex) 부위와 관련된 것들이다. TV영상과 스포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움직임의 연속 과정에서 생산되는 섹슈얼리티는 직접 관찰에 의한 섹슈얼리티보다 더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 2인 ‘신체적 특징 관련 섹슈얼리티’는 강력한 힘과 건강을 상징할 수 있는 신체 외형의 특징과 이 같은 신체적 특징을 갖춘 선수들의 움직임에 의해 묘사되는 섹슈얼리티이다. 요인 3은 ‘화장 및 의상 관련 섹슈얼리티’로 스포츠에서 남성 선수보다 여성선수의 의상이 더 화려하고 화장을 한다는 측면에

서 이는 여성 선수로부터 묘사되는 섹슈얼리티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주로 여성경기로 미적 기준의 예술성이 강조되는 종목에서 나타나는 섹슈얼리티 요소라 할 수 있다.

여자 집단에서는 측정된 데이터가 요인분석 과정에서 수렴되지 않아 요인이 추출되지 않았다. 여자 집단에서 인자가 구성되지 않은 것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남녀의 성역할은 남성 지배 이데올로기적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이 같은 사회적 현상에 따라 각종 미디어에서도 남녀 성역할을 같은 방식으로 묘사해왔다. 일반적으로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섹슈얼리티를 살펴보면, 남성은 남성다움의 이미지로, 여성은 남성의 성적 대상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39][47]. 또한 남녀 선수를 비교해 볼 때 여성 선수의 유니폼은 남성 선수의 유니폼에 비해 더 화려할 뿐만 아니라, 신체노출이 더 많은 스타일로 디자인 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외형적으로 섹슈얼리티 요소가 더 잘 노출될 수 있는 신체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미디어스포츠에서의 섹슈얼리티 묘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남성 소비자를 겨냥해 왔기 때문에 남녀 간 섹슈얼리티 소비경험의 문화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섹슈얼리티 측정문항 내용도 남성 선수와 관련된 것들보다 여성 선수의 신체와 관련된 것들이 더 많게 구성되었다. 따라서 여자 집단의 경우 같은 성을 대상으로 느끼는 섹슈얼리티보다 상대의 성에 대한 섹슈얼리티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더 큰 이성애적 측면에서 여자 집단 구성원들은 여성 관련 섹슈얼리티에 낮은 점수를 부여했을 가능성과 각 문항에 부여한 점수의 분포도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여자 집단에서 요인이 구성되지 않았지만, 전체 집단과 남자 집단 간 비교에서 가장 부각된 요인은 ‘신체적 특징 관련 섹슈얼리티’이다. 이 요인은 주로 남성선수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것들로 구성되었다. 남녀 간 이성애적 사랑이 사회의 일반적 현상임을 감안하면 이 요인에 여자 집단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섹슈얼리티가 가장 높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자 집단에서 요인이 구성되지 않은 것은 그 동안 미디어스포츠에서 여성 선

수의 섹슈얼리티 묘사에 집중되었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여전히 미디어스포츠의 섹슈얼리티 생산은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소비하는 주된 대상은 남성이라는 기존의 생산방식과 소비구조가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자 집단에서는 '성적감응 유발부위 관련 섹슈얼리티', '몸동작/신체적 특징 관련 섹슈얼리티', '유니폼(의상) 관련 섹슈얼리티', '몸단장 행위 관련 섹슈얼리티', '가슴 관련 섹슈얼리티', '젖은 몸 관련 섹슈얼리티', '외모 관련 섹슈얼리티', '건강 관련 섹슈얼리티' 등과 같이 8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남성 스포츠 소비자들은 TV를 통해 생물학적인 성부위, 선수의 움직임, 선수로서의 신체적 특징, 매력적인 외모, 유니폼, 경기 중 땀이 흐르는 모습, 미적행위 모습 등 다양한 요소에서 섹슈얼리티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스포츠프로그램 시청자들이 선수들에 대한 섹슈얼리티를 다양한 차원에서 인지될 수 있는 것은 TV영상과 스포츠 경기의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V 영상은 다양한 카메라 샷에 의해 대상을 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가 대상을 직접 관찰할 때보다 더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 TV영상은 사물의 주제를 중심으로 움직임의 방향성을 지향하면서 연속적인 샷을 구사한다. 특히 슬로모션과 같은 특수 촬영기법을 통해 선수의 움직임을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선수의 생생한 움직임을 더욱 리얼하게 묘사함으로써 경기장에서의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인지되는 섹슈얼리티보다 더 과장되거나 과도한 섹슈얼리티를 생산할 수 있다. 실제로 슬로모션(Slow-Motion) 영상은 정상적인 영상보다 반응의 효과가 더 크다. 즉 TV영상메시지에 대한 수용자들의 반응효과는 슬로모션 영상이 정상속도의 영상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16]. 또한 TV는 카메라의 프레임, 카메라의 움직임, 카메라 앵글, 슬로모션 등을 이용해 심리적 의미나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2]. 따라서 TV 스포츠 영상에 묘사된 섹슈얼리티는 카메라의 움직임과 경기 과정에서 선수들의 움직임과 카메라의 움직임이 결합되어 경기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에 의해 노

출되는 섹슈얼리티는 TV영상의 기술적 특성과 스포츠의 본질적 요소인 선수의 움직임에 의해 증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섹슈얼리티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연출자가 의도적으로 섹슈얼리티를 묘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미디어스포츠에서의 남성경기에 대한 묘사는 촬영, 편집, 음향, 슬로모션 기법 등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강하고 힘센 이미지를 통해 실제보다 과장된 모습으로 묘사한 반면, 여성경기에 대해서는 하위 앵글 기법을 이용하여 복종을 암시하는 자세로 남성 신체보다 생물학적으로 더 열세하다는 논리를 생산하였다[51]. 이 같은 관점에서 TV 스포츠에서의 섹슈얼리티는 상업적 차원에서 시청률을 높일 의도에서 생산되거나 생산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테니스 선수들에게 짧은 흰색 스커트와 같은 여성적인 복장을 장려[30]한 것이나, 여성선수의 여성성과 섹슈얼리티는 피겨스케이팅, 체조, 테니스, 수영, 다이빙 등과 같은 개인적이고 미학적인 즐거움을 주는 종목에서 두드러졌다[51]는 점, 국내 지상파방송의 2008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여성의 경기 종목은 주로 신체노출이 많은 다이빙, 수중발레, 비치발리볼 등 신체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기 위주로 선정성이 엿보이는 편성이었다[18]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프로그램의 특성상 성적인 요소와 관련성이 적은 스포츠에서도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선수의 섹슈얼리티가 생산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섹슈얼리티 요인과 스포츠 선호도 및 시청량 등이 시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집단에서는 3개 요인 모두 시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집단에서는 8개의 섹슈얼리티 요인 가운데 3개의 요인과 스포츠 선호도 및 시청량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 계수에 의한 영향력은 '스포츠프로그램 시청량', '스포츠 선호도', '유니폼 관련 섹슈얼리티', '신체적 특징 관련 섹슈얼리티', '가슴 관련 섹슈얼리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섹슈얼리티 요소는 스포츠 선호도나 시청량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비해 시

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V 시청동기 수준에서의 성적흥미 요인은 시청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8][12][23][44]. TV스포츠에서의 '성적흥미'와 밀접하게 관련된 섹슈얼리티 요인이 시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것은 본 연구에서의 섹슈얼리티가 시청동기 하부영역의 요소라는 점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즉 스포츠프로그램 시청동기는 팬십, 학습, 이완, 교제, 시간 때우기 차원으로 종합할 수 있다[51]. TV스포츠프로그램 시청동기 요인에서는 '성적흥미' 요인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즉 TV스포츠 영상을 통해 다양한 섹슈얼리티가 노출되거나 묘사되고 있지만, 아직 수용자들은 '성적흥미' 동기로 스포츠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의 섹슈얼리티는 섹슈얼리티와 관련이 없는 다양한 시청동기 차원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의도되지 않았던 섹슈얼리티가 노출되어 시청자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것이다. 즉 선수들의 섹슈얼리티는 스포츠프로그램의 다양한 시청동기에 따라 TV를 시청하는 과정에서 노출된다는 점에서 시청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생 수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성적자극이 더 민감한 신체부위 관련 섹슈얼리티보다는 선수들의 유니폼, 가슴, 신체적 특징 등과 관련된 섹슈얼리티 요소 등에 의해 더 큰 만족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노출되는 리얼한 섹슈얼리티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보일 듯 말 듯 하게 묘사되는 섹슈얼리티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선수의 유니폼은 미디어스포츠 수용자의 섹슈얼리티 인지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스포츠프로그램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순간적으로 신체의 특정부위를 노출시키거나 특수 촬영 기법과 카메라 테크닉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스포츠선수들의 섹슈얼리티를 묘사할 수 있다고 하겠다.

특정 종목에 따라 선수들의 섹슈얼리티의 노출 정도가 다를 것이며, 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비교적 자유로운 성인계층 그리고 성별 차이에 따라 섹슈얼리티 요소와 시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향후 이 같은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 결과는 이 같은 연구에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도 선수의 외모가 더욱 중시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 선수의 섹슈얼리티와 스포츠프로그램 시청행위 간 관계성 연구에 기초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1] 고은하, 김한주, “한국 신문에 나타난 여성스포츠 사진 보도의 이데올로기”, 체육과학연구, 제15권, 제4호, pp.172-183, 2004.
- [2] 권중문, “TV 스포츠 방송영상 텍스트 분석”, 현대사건영상학회, 제6권, pp.63-75, 2003.
- [3] 김상우, 이진옥, “미디어스포츠에 나타난 성불평등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 제10권, pp.123-13, 1996.
- [4] 김성겸, 김화룡, “DMB폰 스포츠프로그램에 따른 시청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12권, 제4호, pp.261-271, 2007.
- [5] 김숙자, 김양례, “TV 스포츠 프로그램 제작자와 수용자의 만족도 연구”, 한국 체육학회지, 제35권, 제2호, pp.44-52, 1996.
- [6] 김양례, “미디어 스포츠와 성역할”, 96년도 스포츠 사회학회 동계 세미나 자료집, pp.20-31, 1996.
- [7] 김양례, “TV 스포츠 수용자의 프로그램 시청동기가 시청태도에 미치는 영향”, 체육학회지, 제39권, 제1호, pp.159-169, 2000.
- [8] 김정기, “대학생 수용자의 텔레비전 시청동기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35권, pp.37-77, 1995.
- [9] 김정기, “텔레비전 등장인물과 청소년 시청자의 의사(擬似)인간관계”, 한국방송학보, 제19권, 제1호, pp.255-285, 2005.
- [10] 김홍철, “대학생 스포츠 참여가 TV 스포츠 프로그램 시청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5권, 제3호, pp.197-204, 2004.
- [11] 남상우, “일간신문 스포츠 지면에 나타난 여성 선수 사진의 내용 및 의미 분석”, 한국체육학회

- 지, 제45권, 제4호, pp.101-114, 2004.
- [12] 박광순, “디지털위성방송 시청행태에 관한 연구: 텔레비전 시청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18권, 제2호, pp.169-209, 2004.
- [13] 박은아, 박창희, 박현수, 이호배, “TV 프로그램과 광고의 선정성이 광고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광고학 연구, 제14권, 제4호, pp.123-147, 2003.
- [14] 안경일, “청소년의 TV 스포츠 프로그램 만족도와 스포츠활동 참여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5권, 제6호, pp.1469-1480, 2004.
- [15] 오태웅, “미디어 스포츠와 세계화”,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6권, 제4호, pp.387-400, 2004.
- [16] 이승조, “정보처리과정에 구현된 감각추구성향과 스토모션의 상호작용: 생리적 반응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2권, 제3호, pp.322-345, 2008.
- [17] 이유숙, “텔레비전 선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주관성 연구, 제10호, pp.27-50, 2005.
- [18] 이호영, 윤성옥,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에 관한 분석: 성별, 국가주의, 중복·편성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3권, 제1호, pp.279-314, 2009.
- [19] 임양준, “대학생들의 미국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한 시청동기 및 만족도 연구: 한국텔레비전 드라마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41권, pp.303-337, 2008.
- [20] 조성식, 조광민, “신문스포츠 섹션의 상품화-마케팅 과정과 여자선수의 사진 보도. 한국스포츠행정·경영학회지”, 제3권, 제2호, pp.229-247, 1999.
- [21] 조영제, “격투스포츠 프로그램 시청동기가 대학생의 시청태도 및 폭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4호, pp.129-136, 2007.
- [22] 최상배, 김양례, “TV 스포츠 수용자의 프로그램 관심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제38권, 제3호, pp.195-20, 1999.
- [23] 황하성, 박성복, “텔레비전 시청만족도 형성에 관한 재고찰: 시청동기, 의사인간관계, 실재감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1권, 제5호, pp.339-379, 2007.
- [24] <http://www.sportsbusinesssims.com/femaleathletes.sports.marketing.sex.and.beauty.htm>
- [25] J. R. Angelini, “Television sports and athlete sex: looking at the differences in watching male and female athlete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52, No.1, pp.16-32, 2008.
- [26] <http://list.msu.edu/cgi-bin/wa?A2=ind0310a&L=aejmc&T=0&P=54>
- [27] J. D. Brown, “Mass Media Influences on Sexuality,” *Journal of sex Research*, Vol.39, No.1, pp.42-45, 2002.
- [28] <http://www.startribune.com/sports/11710956.html>
- [29] <http://www.barnard.edu/sfonline/sport/buysse01.htm>.
- [30] <http://serendip.brynmawr.edu/local/scisoc/sports02/papers/kclarke.html>
- [31] D. Cowles, “Consumer perception of interactive media,”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33, No.1, pp.83-89, 1999.
- [32] Cunningham and G. B. Cunningham, “Media Coverage of Women’s Sports: A New Look at an Old Problem,” *Physical Educator*, Vol.60, pp.43-50, 2003.
- [33] <http://list.msu.edu/cgi-bin/wa?A2=ind0209a&L=aejmc&T=0&P=2077>
- [34] R. S. Fullerton, “Not Playing Fair : Coverage of Women & Minorities in Sports Page, Simile,” Vol.6, No.2, pp.2-22, 2006.
- [35] <http://list.msu.edu/cgi-bin/wa?A2=ind0109b&L=aejmc&T=0&P=318>
- [36] <http://list.msu.edu/cgi-bin/wa?A2=ind0109a&L=aejmc&T=0&P=10851>
- [37] J. K. Kim and A. M. Rubin, The variable influence of audience activity on media effects,

- Communication Research, Vol.24, No.2, pp.107-135, 1997.
- [38] <http://list.msu.edu/cgi-bin/wa?A2=ind0109b&L=aejmc&T=0&P=4152>
- [39] N. R. Krassas, J. M. Blauwkamp, and P. Wesselink, "MASTER YOUR JOHNSON: SEXUAL RHETORIC IN MAXIM AND STUFF MAGAZINES," *Sexuality & Culture*, Summer, pp.98-119, 2003.
- [40] G. Lines, "Villains, fools or heroes? Sports stars as role models for young people, *Leisure Studies*, Vol.20, pp.285-303, 2001.
- [41] <http://list.msu.edu/cgi-bin/wa?A2=ind0101a&L=aejmc&T=0&P=3352>
- [42] <http://list.msu.edu/cgi-bin/wa?A2=ind0109a&L=aejmc&T=0&P=11154>
- [43] J. Nauright, "Global games: culture, political economy and sport in the globalised world of the 21st century," *Third World Quarterly*, Vol.27, No.7, pp.1325-1336, 2004.
- [44] E. M. Perse, "Soap opera viewing patterns of college students and cultiv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30, pp.175-193, 1996.
- [45] A. M. Rubin and E. M. Perse, "Audience activity and soap opera involvement: A use and effects investig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14, pp.246-26, 1997a.
- [46] A. M. Rubin and E. M. Perse, "Audience activity and television news gratification. *Communication Research*," Vol.14, pp.58-84, 1997b.
- [47] V. Schneider, K. Cockcroft, and D. Hook, "The Fallible Phallus: A discourse analysis of male sexuality in South African men's interest magazine,"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Vol.38, No.1, pp.136-151, 2008.
- [48] C. A. Tuggle, "Differences in Television Sports Reporting of Men's and Athletics: ESPN SportsCenter and CNN Sports Tonight,"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41, pp.14-24, 1997.
- [49] D. L. Wann, P. J. Waddill, and M. D. Dunham, "Using Sex and Gender Role Orientation to Predict Level of Sport Fandom," *Journal of Sport Behavior*, Vol.27, No.4, pp.367-377, 2004.
- [50] L. M. Ward, K. M. Day, and M. Epstein, "Uncommonly Good: Exploring How Mass Media May Be Positive Influence on Young Women's Sexual Health and Development,"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Vol.112, pp.57-71, 2006.
- [51] L. A. Wenner, *Media Sports*, 1998: 송해룡 옮김, *미디어스포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52] H. Westerbeek and A. Smith, *Sport Business in the Marketplace*, 2003: 송해룡 · 김종 필 · 김태형 공역, *글로벌 미디어 시장과 스포츠 비즈니스*, 레인보우북스, 2008.
- [53] W. A. Whisenant and P. M. Pedersen, "Analyzing Attitudes Regarding Quantity and Quality of Sports Page Coverage: Athletic Director Perceptions of Newspaper Coverage Given to Interscholastic Sports," *International Sports Journal*, Vol.8, No.1, pp.54-64, 2004.

저 자 소 개

박 광 순(Kwang-Soon Park)

정희원



- 2003년 8월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박사)
 - 현재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방송이론 및 영상, 사이버커뮤니케이션